

인플레이션이 노후를 잠식한다.

김동엽 CFP®(kdy1009@miraeasset.com)

언제부터 60 대가 되면 직장을 떠나야 했을까? 처음 은퇴연령이 60 대로 정해진 것은 130 년 전 철혈재상으로 알려진 독일연방공화국의 오토 본 비스마르크 (Otto Eduard Leopold von Bismarck)가 연금 지급나이를 65 세로 정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당시 평균 수명이 46 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연금을 수령한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프랭클린 루스벨트 (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이 1930 년대 유명한 뉴딜 정책을 입안하면서 연금을 지급하는 은퇴연령을 62 세로 정해졌다. 당시만 해도 미국인들의 평균수명은 63 세였으니 은퇴 연령은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과거 역사를 살펴 보면 사실상 은퇴는 없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은퇴가 갖는 의미도 많이 바뀌었다. 은퇴 연령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평균수명의 증가로 퇴직 후 사망까지 은퇴자가 살아야 할 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유아 사망 등 원인을 제외한 50 세 이상 장년·노인층 인구의 평균 수명은 이미 90 세에 이르렀다고 하니, 만약 60 세에 퇴직을 한 근로자라고 하면 은퇴기간이 30 년이나 되는 셈이다.

은퇴 후 30 년! 적지 않은 시간이다.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특히 노후 자산관리 부분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은퇴 후 자산 관리는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제일(安全第一)형 자산관리였다. 그도 그럴 것이 평균수명이 짧을 때는 노후생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하면서 필요한 만큼 꺼내 쓰면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길어진 수명 때문에 노후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돈이 더 필요할 것이고 장기간에 걸친 노후생활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은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장수리스크에 대비한 합리적인 자산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핵심포인트

- 인플레이션이 은퇴생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한다.
- 장수리스크에 대비한 합리적인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1. 인플레이션이 노후를 잠식한다.

30년 배우고 30년 일하고 30년 노후를 보낸다는 트리플 써티 (Triple Thirty, 30-30-30)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면 은퇴 후 자산관리 방법도 달라야 할 것이다. 이때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 인플레이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은퇴자가 매월 200만원의 생활비를 쓸 것을 계획하고 은퇴자금을 준비했다고 가정해 보자. 물가가 전혀 상승하지 않는다면 은퇴기간 동안 계속해서 200만원의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매년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한다면 그 문제는 달라진다.

[그림 1]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노후생활비 200만원의 구매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만약 물가상승률이 5%만 된다고 하더라도 200만원의 가치는 10년 후에는 120만원, 20년 후에는 72만원, 30년 후에는 43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은퇴자는 30년 후에는 지금의 생활규모를 1/5로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은퇴자의 노후를 잠식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인플레이션에 따른 노후생활비 200만원의 구매력 변화



2.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노후 자산을 갉아 먹는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은퇴자의 삶을 어떻게 갉아 먹는지 좀 더 실감나게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2]는 노후생활자금으로 5 억원을 준비한 은퇴자가 은퇴자산을 매년 3%씩 수익을 내며 운용할 때 생활자금이 어떻게 소진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 안의 금액은 생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다.) 은퇴자가 생활비로 연 2400 만원 (월 200 만원)을 사용한다면 5 억원을 가지고 얼마나 생활할 수 있을까? 그림에서 보듯이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는다면 30 년을 거뜬히 버텨낼 수 있다.

하지만 물가가 꾸준히 상승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물가상승률이 투자수익률과 같은 매년 3%만 되어도 버텨낼 수 있는 기간은 20 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심해진다. 그림에서 보듯이 5 억원을 가지고 은퇴자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물가상승률이 5%일 때는 17 년, 7%일 때는 15 년, 9%일 때는 14 년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란 도둑은 만화영화 ‘툼과 제리’에서 제리처럼 영리하고 약삭빠르기 때문에 은퇴자는 자신의 자산을 도둑 맞고 있다는 사실조차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

[그림 2] 인플레이션은 노후생활자금을 어떻게 갉아 먹는가!

준비자금		500,000천원				
노후생활비		24,000천원				
투자수익률		3%				
물가상승률	소진기간	0%	3%	5%	7%	9%
		31년	20년	17년	15년	14년
0	0	500,000 천원	500,000 천원	500,000 천원	500,000 천원	500,000 천원
1	1	490,280 천원	490,280 천원	490,280 천원	490,280 천원	490,280 천원
2	2	480,268 천원	479,527 천원	479,032 천원	478,538 천원	478,044 천원
3	3	469,956 천원	467,687 천원	466,150 천원	464,592 천원	463,015 천원
4	4	459,335 천원	454,706 천원	451,518 천원	448,247 천원	444,892 천원
5	5	448,395 천원	440,524 천원	435,016 천원	429,291 천원	423,345 천원
6	6	437,127 천원	425,083 천원	416,517 천원	407,499 천원	398,010 천원
7	7	425,521 천원	408,318 천원	395,885 천원	382,626 천원	368,493 천원
8	8	413,566 천원	390,165 천원	372,978 천원	354,410 천원	334,359 천원
9	9	401,253 천원	370,556 천원	347,645 천원	322,569 천원	295,133 천원
10	10	388,571 천원	349,418 천원	319,725 천원	286,799 천원	250,298 천원
11	11	375,508 천원	326,679 천원	289,051 천원	246,775 천원	199,286 천원
12	12	362,053 천원	302,261 천원	255,442 천원	202,146 천원	141,476 천원
13	13	348,195 천원	276,084 천원	218,712 천원	152,536 천원	76,191 천원
14	14	333,921 천원	248,065 천원	178,660 천원	97,541 천원	2,690 천원
15	15	319,219 천원	218,115 천원	135,076 천원	36,726 천원	
16	16	304,075 천원	186,146 천원	87,737 천원		
17	17	288,477 천원	152,062 천원	36,409 천원		
18	18	272,412 천원	115,765 천원			
19	19	255,864 천원	77,154 천원			
20	20	238,820 천원	36,122 천원			
21	21	221,265 천원				
22	22	203,182 천원				
23	23	184,558 천원				
24	24	165,375 천원				
25	25	145,616 천원				
26	26	125,264 천원				
27	27	104,302 천원				
28	28	82,711 천원				
29	29	60,473 천원				
30	30	37,567 천원				
31	31	13,974 천원				

3. 인플레이션을 잡아라!

그렇다고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지 않은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은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좋은 대안일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투자수익률 차이가 은퇴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3]는 은퇴자금으로 5 억원을 준비한 은퇴자가 매년 현재 가치로 2400 만원(물가상승률 5%)을 생활비로 사용할 때 투자 수익률 차이에 따른 은퇴자금 소진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만약 은퇴자가 자금을 장롱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면 5 억원은 14 년이면 소진될 것이다. 반면 은퇴기간 동안 운용 수익률이 연 2%일 때는 노후자산이 전부 소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6년, 4%일 때는 19년, 6%일 때는 23년, 8%일 때는 30년으로 수익률의 증가에 따라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30년간 꾸준히 매년 6~8% 이상의 수익을 내며 은퇴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익을 내려다 자칫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전하게만 운용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안전자산에 운용하면 자산 가격 변동 위험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나브로 다가오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해갈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림 3]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

준비자금		500,000천원		노후생활비		24,000천원		물가상승률		5%	
투자수익률	소진기간	0%	14년	2%	16년	4%	19년	6%	23년	8%	30년
0		500,000	천원	500,000	천원	500,000	천원	500,000	천원	500,000	천원
1		476,000	천원	485,520	천원	495,040	천원	504,560	천원	514,080	천원
2		450,800	천원	469,526	천원	488,634	천원	508,122	천원	527,990	천원
3		424,340	천원	451,928	천원	480,661	천원	510,561	천원	541,653	천원
4		396,557	천원	432,628	천원	470,993	천원	511,745	천원	554,979	천원
5		367,385	천원	411,525	천원	459,493	천원	511,527	천원	567,872	천원
6		336,754	천원	388,512	천원	446,017	천원	509,750	천원	580,220	천원
7		304,592	천원	363,476	천원	430,409	천원	506,243	천원	591,903	천원
8		270,821	천원	336,300	천원	412,504	천원	500,821	천원	602,783	천원
9		235,362	천원	306,858	천원	392,127	천원	493,284	천원	612,710	천원
10		198,131	천원	275,019	천원	369,091	천원	483,415	천원	621,516	천원
11		159,037	천원	240,644	천원	343,197	천원	470,981	천원	629,017	천원
12		117,989	천원	203,587	천원	314,235	천원	455,729	천원	635,006	천원
13		74,888	천원	163,697	천원	281,980	천원	437,386	천원	639,258	천원
14		29,633	천원	120,810	천원	246,193	천원	415,658	천원	641,522	천원
15				74,757	천원	206,622	천원	390,228	천원	641,524	천원
16				25,360	천원	162,997	천원	360,754	천원	638,961	천원
17						115,032	천원	326,867	천원	633,497	천원
18						62,425	천원	288,170	천원	624,768	천원
19						4,852	천원	244,236	천원	612,370	천원
20								194,604	천원	595,861	천원
21								138,781	천원	574,756	천원
22								76,233	천원	548,525	천원
23								6,388	천원	516,584	천원
24										478,297	천원
25										432,966	천원
26										379,829	천원
27										318,052	천원
28										246,725	천원
29										164,853	천원
30										71,351	천원

4.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은퇴자

은퇴자는 눈앞에 보이는 자산가격 변동 위험도 걱정해야 하지만 긴 은퇴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진 꼴이다. 게다가 수명이 언제까지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장생의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꼴이다. 물론 원금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그 보다 좋은 방법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투자 대안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은퇴를 위한 자산 관리가 단순히 자산을 모으는 적립(Accumulation)단계를 넘어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인출(Decumulation)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돈을 모으는 목적이 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라면 이러한 관심의 변화는 은퇴를 앞둔 투자자에게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투자의 시계를 은퇴 전 자금 적립단계에서 은퇴 이후까지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은퇴자금 관리와 인출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살펴 보도록 하자.